

광주시장·전남지사 송·신년 기자회견

광주시·전남도는 2018년 각각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확정하고,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본격화 하는 등 분주한 해

를 보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송·신년사를 정리해 소개한다.

“광주형 일자리사업 성사 총력”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역·송정역 개발 해결
도시철도2호선 본격 착공
수영대회 성공 개최 올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2018년에 도시철도 2호선, 군 공항 이전,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개발 등 해묵은 현안이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10대 시정 성과와 2019년 추진할 10대 핵심시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우선 올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벨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사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상반기 착공, 광주·대구 내륙철도와 경전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으로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군 공항 이전 부지를 스마트시티와 국제테마파크로 재탄생시킬 개발 로드맵 수립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사업 여건 획기적 개선, 광주전 이리랑물길 조성사업, 광주다운 도시 재생을 통한 디자인 도시 구현,

광주형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안전한 광주 건설 등을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또 “2018년은 한반도에는 평화의 이정표가, 광주에는 혁신의 이정표가 새롭게 세워졌던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현안 해결, 일자리 중심 혁신 시스템 구축, 광주다운 회복을 통한 문화 광주의 기반 구축 등을

2018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문화 과정을 거쳐 도시철도 2호선 시대를 활짝 열었고, 국내의 26개 기업과 44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 가는 데 힘을 더했다”고 자평했다.

또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담당 부서 확대 개편,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 전 부서 일자리 성과 평가제 실시 등 시장 운영체계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확정해 광주시정 전반에 일자리 중심 혁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5개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국비 700억원 확보, 광주송정역·광주역에 광주다운 개발 토대 마련,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조기 이전 전격 합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상궤도 회복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내놓았다.

이 시장은 “국가적인 과제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2019년 추진하는 10대 시책과 함께 소통과 혁신의 양 날개로 힘차게 응비하는 광주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김영록 전남지사
경전선 전철화 등 SOC 확보
전남 관광 6000만시대 실현
신안 흑산공항 건설 재상정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올해 도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SOC 확보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성과 또한 KTX 무안공항 경우 확정, 경전선·남해안철도 전철화 등 SOC 확보였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남해안 주요 권역을 융복합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도정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새해 역점시책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 신경제지도 구상인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새로운 중심 성장축으로 남해안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산시·경남도와 협력해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대응사업으로 완도·고흥·여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목포·부산 해양관광도로 단절 구간 개설, 이순신 호국

대했다. 새해 주요 도정 방향에 대해서는 7가지 핵심 전략을 내놓았다.

▲혁신성장 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남관광 6000만명 시대 실현 ▲친환경 스마트 농축어업 기반 마련 ▲지역발전 견인할 핵심 SOC 확보 ▲도민 행복시책 본격 시행 ▲쾌적하고 안전한 전남 만들기 ▲도민 제일주의 도정 실현 등이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e-모빌리티·생물약·우주항공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해양치유단지 조성, 예코푸른 숲 전남 만들기 확대 추진 등을 꼽았다.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친환경 축산 융복합단지 조성, 연륙·연도교 건설, 흑산공항 건설 재상정, 무안공항 통합 기반 확충,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등도 김 지사의 새해 주요 사업들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기해년 새해의 뜻깊은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모든 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하나하나 만들겠다”며 “도정 초점을 ‘도민 행복’에 맞추고 분야별로 다양한 행복 체감형 시책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닥터헬기 계류장 내년 5월까지 압해도로 옮긴다

목포 옥암수변공원 소음 민원

전남 서남부권 도서·산간지역 응급의료 환자를 옮기는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계류장이 목포 옥암수변공원에서 신안 압해도로 옮긴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음 민원이 잇따르면서 헬기 계류장을 옮기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옥암수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을 내년 5월까지 신안 압해도로 압해도로 인근 매패지로 옮기기로 했다. 이 곳에는 헬기 계류와 헬기관리 및 의료 인력 상주를 위한 건물 1동,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춘다.

옥암수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에는 의료 인력이 상주하지 않았다. 닥터헬기 운용 병원인 목포한국병원과 가까워 상황 발생 시 의료인력을 투입하면 됐지만, 신안 압

해도는 이동 거리가 멀어 계류장을 옮기면 의료 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목포한국병원 원은 압해도 계류장 개소 시기에 맞춰 근무할 의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닥터헬기가 운용된 지난 8년 동안 계류장 인근에 아파트 밀집단지가 조성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자 계류장 이전을 추진했다. 새 계류장 완공 시기와 현 계류장 이용만료 시기(12월31일)가 맞지 않아 닥터헬기 운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주민들이 5월까지 사용을 수용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닥터헬기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현 계류장 사용기한을 늘려주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1시간 이내 ‘골든아워’에 치료하

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인 닥터헬기는 의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섬 주민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다.

전남은 2011년부터 닥터 헬기를 이용해 매일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도서지역 등의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16년 중형 기종인 AW-169를 도입해 병행 운행 145km 떨어진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까지 운항할 수 있다. 지난해 343명, 2011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총 1500여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섬과 육지를 포함한 지역 내 이착륙장, 인계점 228곳 중 안전기준을 모두 갖춘 곳이 48곳에 불과한 데다 상주할 응급의료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 보여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호반 ‘어등산 개발 협약’ 내년 연기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호반 컨소시엄과의 협약 체결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레지던스 호텔’을 둘러싸고 도시공사와 (주)호반 측이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협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는 27일 “지난 9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호반 측이 26일 보내온 공문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최근 (주)호반에 ‘레지던스 호텔 분양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거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호반 측은 26일 ‘관련법에 의거해 생활속박시설로 사용하도록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한다’로 수정해 제시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할 때 올해 내에 협약을 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호반 측이 제시한 사업안은 1조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휴양시설, 체육·오락시설, 공공시설, 워터파크, 인공해변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공사와 (주)호반이 합의에 이르면 내년 1월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주)호반은 실시설계,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절차를 추진,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정규직 채용 내년 1월 18일까지 접수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공개모집 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도 채용 규모는 5명 이상으로, 상반기에 F1경주장 운영직 2명을 채용한다. 또 하반기에는 여수죽림지구, 담양, 광양 신규 택지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추진 정도에 따라 최소 3명 이상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다.

상반기 채용은 1차 필기시험, 2차 적격심사,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서는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인사총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를 참고하거나 인사총무부(061-280-063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